

보고 듣고 찍고 공부하고... '꿈의 컨버전스 현실로'

휴대폰 · PDA · MP3P 컨버전스 본격화
가격 낮추고 디자인 개선 대중화 예고

요즘 디지털 컨버전스(융·복합화)는 대세다. 프린터복합기뿐이 아니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의 첨단 '컨버전스(Convergence) 단말기'들이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다. MP3플레이어 업체들은 잇따라 '보는' 기능을 제품에 접목시키고 있는 반면, 휴대폰 업계는 디지털카메라에 MP3, 게임, 방송시청 기능까지 장착하는 등 '기능별 짝짓기'에 한창이다. 단순 단말기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능이 녹아들고 있는 것. 특히 작은 손바닥만한 단말기 속에 앞으로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하다. 이에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의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해성 기자

'MP3P+동영상' '휴대폰+PDA' '휴대폰+카메라' '휴대폰+방송' '휴대폰+게임' '휴대폰+HDD'.....

휴대폰 · PDA · MP3플레이어(MP3P) 등 휴대용 디지털 기기의 '컨버전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IT 전 분야에서 컨버전스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1인 1기기'를 표방하는 휴대용 디지털기기 분야의 경우 시장 규모가 엄청나고, 개인의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휴대폰의 경우 최근 300만화소 이상의 메가픽셀 카메라폰에 MP3 재생이 가능한 MP3폰이 잇따라 출시되는가 하면, 대표적인 컨버전스 제품인 PDA폰 역시 과거의 투박한 디자인과 불편한 사용방법을 크게 개선하고 있어, 물류관리 등의 업무용도가 아닌 대중적인 일반 사용자 시장에 안착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나오는 PDA폰은 CDMA와 무선랜 모듈을 동시에 탑재한 제품으로 변신, 비용이 높고 사용이 불편했던 기존 모바일 인터넷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여기에 단순 음향기기로 인식됐던 MP3P도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술진입 장벽이 낮은 MP3P 산업 특성상, 단순 기능만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도전해오고 있는 중국업체들을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업체들은 MP3P에 디지털카메라를 접목하는 아이디어 상품을 내놓은 데 이어, 단순 MP3P에서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로 산업의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나가고 있다.

이 같은 휴대용 복합제품들은 여러 기능을 하나에 결합한 만큼, 휴대성을 더욱 높일 수 있어 감각적인 구매형태를 가진 젊은 세대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합제품은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사용도 불편해 외면당했으나, 최근 등장하는 제품은 이 같은 문제를 일소하고 있어 실리를 따지는 30~40대에게도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 휴대용 복합제품의 최대 장점은 각 기능의 제품을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 요즘과 같은 불황기에는 알뜰 쇼핑족의 시선을 끄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2년전만 해도 컨버전스는 IT산업의 흐름을 예측하는 전망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IT산업 전반에 스며든 패러다임이 됐다"며 "치열한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국내 휴대용 디지털기기 업체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넘치고 기술 집약적인 복합제품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듣기만 하는 MP3P 가라

듣기만 하는 MP3플레이어는 가라. MP3플레이어 업계는 동영상 재생은 물론 디지털카메라 기능을 갖춘 '컨버전스 멀티플레이어' 쪽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

MP3음악 재생은 물론 동영상 재생이나 디지털카메라 기능까지 갖춘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 Portable Multimedia Player 또는 Portable Media Player)가 MP3P를



▲ 소니 HMP-A1



▲ DM테크놀로지 '디퍼'



▲ 이화산업 '아이유비'



▲ 네오솔 'CN-2210MS'



▲ 아이리버 PMP-100 시리즈



이를 차세대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기기로 주목을 받고 있다.

MP3P 전문 제작업체는 물론 삼성전자 등 국내·외 대형 가전 회사들은 PMP시장 성공 여부를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머지않아 PMP가 MP3P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며 PMP 시장 선점을 위해 잇따라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차세대 휴대형 컨버전스 기기로 불리는 PMP는 Portable Multimedia Player의 약자로 휴대형 멀티미디어 재생기를 뜻

한다. MP3P가 MP3음악 파일만을, 디빅스가 동영상 재생하는 데 그치는 데 반해 대용량 저장장치와 컬러 액정화면을 장착해 음악재생은 물론 동영상 저장 및 재생까지 가능하다.

휴대가 편하도록 손바닥 보다 작은 크기로 만들어졌으며 3.5인치 안팎의 LCD화면이 장착돼 있다. MP3P 기능과 FM라디오 수신기능, 전자사전기능, 게임기능 등이 결합된 제품인 셈이다. 최근에 나오는 제품은 디지털카메라와 디지털캠코더의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다.

최근 나온 PMP는 대부분 PDA(개인휴대단말기)와 비슷한 12x7cm 정도의 크기에 3.5인치 컬러 LCD 화면을 갖추고 있다. 이 크기는 교육방송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본 화면과 비슷하다. 또 대부분 자동 가사, 자막 기능이 있어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영화 등으로 외국어 공부를 하려는 직장인들에게도 유용할 전망이다. PMP의 가장 큰 강점은 넉넉한 저장 용량이다. PDA가 외장형 메모리까지 포함해도 1GB에도 못미치는 반면 레인콤, 이화산업, 디지털큐브, 이레전자, 엠파비오 등 대부분의 제품은 웬만한 노트북 컴퓨터에 육박하는 20GB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이는 2시간짜리 영화 100여편을 저장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의 제품은 USB 디지털 카메라나 플래시형 MP3P에 담긴 사진과 음성을 넣어두는 휴대형 저장장치, 이미지 뷰어로도 유용하다. 현재 PMP에 대해 MP3P와 HDD, 동영상 기능이 결합된 제품을 기본적으로 칭하고 있고 휴대폰과 HDD, 동영상, MP3P 제품에 대해서는 휴대폰 또는 컨버전스폰이라고 대부분 명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안, 빠르면 내년 하반기면 현재 PMP로 불리는 제품은 휴대폰 기능까지 결합돼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휴대폰과 PMP의 명칭에 대한 경계성이 모호해지게 될 것이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장경쟁 진입

그렇다면 현재 출시되고 있는 PMP는 어떤 제품이 있을까. PMP시장은 사실상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진입에 나섰다.

레인콤이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내놓은 신제품(아이리버 피엠피 120, 140)은 오디오 12시간, 동영상 5시간 재생이 가능하고 디빅스, 엠팩4 등의 동영상을 변환없이 지원한다. 그러나 터치스크린이 지원되지 않고, 다른 제품보다 약간 두꺼운 점이 아쉽다. 가격은 20GB 59만9,000원, 40GB 69만9,000원선이다. 디지털큐브가 10월 중순 시판할 예정인 '아이스테이션 피



▲ 이레전자 '포체(FOCE)'

엠펙 1000'는 어학 용도로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영한·한영 전자사전을 내장했다.

엠펙, 디빅스 외에 오지지(OGG), 에이브이아이(AVI) 등 다양한 동영상 포맷을 지원한다. 무게는 240g이고, 터치스크린 방식이다. 가격은 미정이나 레인콤 제품과 비슷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3.5인치 화면에 20GB의 저장공간을 갖춘 '엠펙 YH-999 포터블 미디어센터'를 개발 완료하고 예약판매중이다. 이 제품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96, 106, 21mm로 손에 착 달라붙은 크기로 무게는 220g 정도에 불과하다. MP3 및 동영상 파일 재생이나 사진저장, TV출력 기능을 갖추고 있다.

LG전자도 차세대 엔터테인먼트 기기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PMP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LG전자는 10월 HDD타입 MP3플레이어, 11월 PMP 등 자체 제작한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고 3개월마다 2종의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LG전자가 개발한 PMP는 'MF-HE700' 모델로, 20GB 용량의 1.8인치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와 6만5,000컬러의 2.2인치 LCD화면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은 MP3·WMA·ASF·OGG·WAV 등 음악파일은 물론, MPEG·DivX 등의 동영상 파일도 지원해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면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이미지 파일 포맷인 JPEG을 지원해 포토 앨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텍스트 기반의 전자책 기능도 갖췄다. 특히 FM트랜스미터 기능



▲ LG전자 'MF-HE700'

을 탑재해 차량 내 FM라디오와 주파수를 일치시켜 음악 또는 영화 사운드를 송출할 수 있으며, 한 번 충전으로 비디오는 8시간, 음악은 20시간 연속 재생할 수 있다. 거원시스템도 동영상 재생 기능을 갖춘 제품(YH-999)을 하반기에 선보인다.

기존 MP3P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진출해 있던 기업들도 PMP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화학·섬유기업이던 이화산업은 20GB 하드디스크를 내장해, 90분짜리 동영상 50편, MP3 음악 파일 5,000곡을 저장할 수 있는 '아이유비(iubi)'를 개발, 본격 생산에 돌입했다. 이 제품은 동영상은 물론 사진 이미지를 3.5인치 LCD화면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특히 AV 연결단자를 이용해 TV뉴스, 드라마, 영화를 실시간으로 녹화한 뒤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시청할 수 있고 리튬이온 배터리 하나로 3시간 30분간 사용할 수 있다.

이화산업은 음악·영화·강의 등 PMP용 콘텐츠를 제품 홈페이지(www.rifa.co.kr)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며, 추후 텍스트뷰어·계산기·메모장·그래픽툴 등의 다양한 기능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값은 59만6,000원이며, 이화산업은 다음달 14일까지 구입 고객에게 충전 거치대와 여분의 배터리를 증정한다. 네트워크 스토리지 전문업체인 젠네트웍스는 자사의 저장 장치 기술을 활용한 디빅스 스토리지 PMP(DivX Storage PMP)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80GB의 고용량 하드디스크가 내장돼 영화 120여 편이나 MP3 파일 2만여 곡을 담을 수 있다. 모니터 제조업체 이레전자도 지난 3월 독일에서 개최된 독일 하노버 세빛 2004 전시회에 휴대용 멀티미디어 시제품 '이레 PMP'를 선보였다.

2.2인치 컬러 LCD 창에 80g의 무게로 구성된 이 제품은 작은 사이즈와 고급 화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멀티미디어 칩 제조업체인 이노플러스는 동영상을 녹화했다가 도서관, 학교 교정 등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PMP 제품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이달쯤 선보일 이 제품은 3.5인치 모니터가 장착되고 20, 40GB의 하드디스크를 내장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페드로컴이 출시한 '엠펜비오 DDP 1000'은 2.5인치 엘시디로 화면이 작은 편이나 가격은 40만원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리모컨 기능이 있어 음악 등을 조절하기에 편리하다. 대우텔레텍이 지난해 출시한 '아코스 AV 320'는 프랑스 특유의 미려한 디자인이 좋지만 가격이 80만원대로 비싼 편. 올해 말~내년 초 사이에 삼성, 엘지 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이화산업 등 국내 중소기업에서도 새 피엠피 모델 출시 계획이 잡혀 있다.

휴대폰 진화는 계속된다

지금까지 MP3와 디지털카메라 기능을 놓고 시장 다툼을 벌였



▲ 한국HP 네스팟 스윙폰



▲ 삼성 애니콜 300만화소 '디카폰'

던 휴대폰 업계의 욕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연내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무선랜, 블루투스, 지문인식, 무선기,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게임기 등을 줄줄이 집어삼켜, 휴대폰의 진화는 아직도 진행중임을 거듭 보여줄 전망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세계 처음으로 휴대폰에 1.5GB급 HDD를 장착한 메가픽셀 카메라폰을 출시했다.

KTF 관계자는 “이 제품은 휴대폰의 저장공간은 현재 최대 128MB(=1Gb)급에서 12배 가량 늘어난다. MP3 음악파일 250곡, 동영상 70여시간 분량을 저장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분기에 1Gb 시대를 열었던 휴대폰이 불과 몇 달도 안 돼 1GB급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LG전자가 최근 출시한 128MB 메모리의 130만화소 카메라폰 'KV5100'의 경우에는 최장 5시간 동영상 촬영 또는 30여곡의 MP3 파일을 담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세계 최소형의 0.8인치 HDD(도시바)를 채택, MP3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한 제조사 사장은 “삼성전자와 함께 노키아 등이 도시바 HDD를 채택, 휴대폰을 개발 중”이라며 “HDD 사이즈가 작아진 만큼 충격 등에도 강해진다, 전력소모량도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문인식 등의 생체보안 기능이 휴대폰에도 들어온다. 팬택은 최근 지문인식 기능을 지원하는 GSM 카메라폰 'GI 100'을 개발, 수출하기 시작한 데 이어 조만간 국내 모델도 공급할 예정이다. 지문인식 기능을 구현한 만큼 사용자가 자신의 지문으로 휴대폰 잠금 기능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 안심하고 모바일뱅킹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휴대폰에 등록한 뒤 자주 쓰는 전화

번호를 저장해 두면 필요할 때 손가락을 문질러 원하는 전화번호를 호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LG전자도 국내 처음으로 지문인식 스캐너가 내장된 메가픽셀 카메라폰 'LP-3800'을 선보인다. 지문 스캐닝을 통해 개인 인증과정을 거치도록 개발된 이 모델은 LG텔레콤의 모바일뱅킹 전용 단말기로 시중에 풀릴 예정이다.

LG텔레콤 정경래 상무는 “모바일뱅킹 서비스인뱅크온 전용 단말기로 이달부터 지문인식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말기를 분실해도 모바일뱅킹 서비스 사용자가 안심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다.

그 뿐 아니다. 초당 11메가의 초고속 인터넷을 지원하는 무선랜을 장착한 휴대폰도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시장에 잇따라 출시된다. 한국HP, 삼성전자 등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한국HP는 LG전자로부터 소싱한 무선랜 스마트폰을 지난달 초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포켓PC 운영체제 기반의 무선랜 스마트폰을 KT에 연내 납품할 방침이다.

KTF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휴대폰에 무선랜이 접목되기 시작, 내년 하반기부터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주로 PDA 업체들이 이 시장에 출사표를 나서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상당수 휴대폰 제조사도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블루투스 통신을 지원, 사용자가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 든 상태에서도 유선전화망과 연결해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는 원폰 단말기도 등장한다. KT와 삼성전자는 이 단말기를 개발, 3분기중에 시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기고 / 휴대폰의 미래

완전통합 단말기 '글쎄' ...부분적 컨버전스 단말기 진화

글 / 조준일 LG경제연구원

휴대폰은 향후 4~5년간 휴대성, 디자인, 사용자 편의성 등이 중시되면서 완전 통합 단말기보다는 부분적 컨버전스 제품인 Infotainment 단말기 형태로 진화할 전망이다. 현재 휴대폰은 통신 이용의 편의성 증대, 정보화의 확산 선도 등을 통해 우리의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면서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통신수단에서 벗어나 개성과 유행을 반영하는 액세서리로 변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약적인 기술 발전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추가 등을 통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한편 IT 산업 전반에 걸쳐 모바일화, 네트워크화, 융합/복합화 등의 트렌드가 가속되면서 IT 산업에서 차지하는 휴대폰의 전략적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차세대 휴대폰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기존 휴대폰 기업뿐만 아니라 PDA/PC/AV가전 기업 등의 시장 진입과 제품 출시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Feature Phone, PDA, 스마트폰, 인터넷게임기 등 수많은 제품군의 등장과 소멸이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차세대 휴대폰의 주도적 컨셉이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한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향후 휴대폰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지를 조망하여 미래에 나타날 휴대폰 제품 유형을 짚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외에도 '푸시 투 토크(PTT)'라 불리는 일종의 무전기 기능을 지원하는 휴대폰이 올 하반기에 쏟아질 전망이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은 이미 PTT폰 개발을 거의 끝내고 출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PTT 기능을 지원하면 사용자는 상대방이 수신버튼을 누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무전기 사용과 마찬가지로 바로 휴대폰에 입술을 갖다대고 말하면 상대방에게 바로 전달된다. 또 이미 잘 알려졌듯이 TU미디어의 10월 위성 DMB 서비스 시작 계획에 맞춰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SK텔레텍, 모토로라, 싸이버뱅크 등이 위성DMB 수신이 가능한 휴대폰을 개발 중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PDA 스마트폰 M400 모델을 선보이면서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 튜너를 장착한 적이 있다. 하지만, 위성DMB폰이 등장하면 선명한 화질의 방송을 사용자가 원하는 때에 맘대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SB100' 단말기는 해상도가 무려 320x320으로 지금껏 나온 휴대폰 중 가장 고해상도를 지원한다. 또 TV화면 저장과 서라운드 사운드도 지원된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은 4분기 중에 선보일 예정이며, 나머지 회사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대부분 도시바 칩을 채택해 개발중인 가운데 삼성전자만 자체 개발한 저전력 칩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LG전자도 올 연말에는 자체 칩을 개발, 내년부터는 이를 적용한 후속 모델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올 하반기에는 3D 그래픽 가속칩과 초고속 프로세서, 게임기의 조작법 등을 대거 채용해 새롭게 탈바꿈한 '진통이' 게임폰이 대거 쏟아진다.

NHN 관계자는 "PC의 발달에 따라 네트워크게임이 2차원 텍스트 수준에서 3차원 그래픽 환경으로 옮겨갔다"며 "휴대폰이 진화하면서 모바일게임도 이제 그 같은 변화가 일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일 SK텔레콤(V450)과 KTF용(V4600)으로 나눠 게임폰을 출시했다. 이 제품의 특징은 게임속도가 향상된 것은 물론이고 '조이스틱'을 축소한 방향버튼을 기존 폴더형 휴대폰의 하단에 장착해, 외모가 게임기와 흡사하다는 점이다. 팬택엔큐리텔은 게임폰 1종을 우선 SK텔레콤용으로 출시했고 4분기 중에 1~2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3분기에 나온 게임폰에는 3D 그래픽과 사운드가 지원된다. 싸이버뱅크는 무선랜과 이동통신을 둘다 지원하는 스마트폰 '포즈 X301'의 변형 게임폰을 늦어도 4분기에는 SK텔레콤용으로 선보인다. LG전자도 하반기에 게임폰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브랜드 구호도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변하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룩스 굿 싸이언'이라는 구호로 디자인 요소를 강조했던 LG전자는 올들어 '필스 굿 싸이언', '사운즈 굿 싸이언' 등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 MP3, 카메라 등의 기능미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올해로 애니콜 브랜드 출시 1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는 '디지털 역사이팅 애니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 컨버전스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컨버전스폰, 고부가가치 주도

'컨버전스', '고화질 디스플레이', '3세대 단말기'.

복합 멀티미디어 단말기로 변모

최근 휴대폰은 음성통화 중심의 기능에서 벗어나 애플리케이션이 크게 확장되는 가운데 데이터통신, AV 기능, 컴퓨팅 기능 등이 다양하게 추가된 복합 멀티미디어 단말기로 변모하고 있다. 게임기, 디지털카메라, MP3, 휴대용 TV, 전자수첩, PDA, HPC, 카 네비게이션 등 여러 가지 모바일 전자기기들의 기능이 휴대폰에 추가/접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휴대폰이 복합 멀티미디어 단말기로 변모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수요 측면에서 정보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연속적 커뮤니케이션 및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다양화 추구, 개인화된 실시간 정보 획득의 선호, 오락성과 멀티미디어의 추구, 편의성과 서비스 속도의 증대 요구 등의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휴대폰 고객들의 경우 단일 기기에서 다양한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휴대 용이성과 사용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술 측면에서 디지털 컨버전스의 진전으로 단말기에 컴퓨팅, AV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원활해지고 있으며, 평면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 System-on-a chip화 경향, 마이크로 저장기술 발전, 고용량 배터리 기술 개발 진전 등을 바탕으로 무선기기의 소형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인프라 측면에서도 2.5G, 3G, 무선랜 등으로의 고속화가 가속되고 있고, IP 기반 서비스로의 통합 진전으로 기기간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 셋째, 공급 측면에서 휴대폰 시장의 성숙기 진입과 기술의 범용화 등으로 신성장 영역의 개척과 제품 차별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래와 함께 IT 분야에서 휴대폰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PDA, PC, AV가전 등의 기업들도 차세대 휴대폰 시장 진입을 위해 멀티미디어 단말기 개발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국내 휴대폰업체들이 2005년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사와 겨뤄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종주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중인 휴대폰 라인업과 기술 트렌드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은 IT분야의 시험장(테스트베드)인 국내시장에서 검증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박자 빠른 제품라인업과 기술로 해외시장에서 승부수를 던진다는 전략이다. 이들 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 우수 글로벌 기업들과 맞서기 위해 준비중인 첫번째 비장의 카드는 유용한 기능을 휴대폰 속에 결합시키는 '컨버전스'다.

아울러 국내에서 꽃망울을 터뜨린 3세대 휴대폰을 주력 제품으로 해외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는 동시에 고화질 카메라폰을 해외에도 선보여 디스플레이분야에서 차별화 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내년 휴대폰업체들의 해외시장전략은 융합형 휴대폰의 '윈조' 격인 카메라폰 성공의 여세를 몰아 다기능 융합형 단말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올해 MP3폰이 카메라폰을 위협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데 힘입어 TV폰, DMB폰, PDA폰, 캠코더폰 등 각종 기기와의 융합을 멈추지 않을 태세다.

삼성전자는 하이엔드(고가)시장에서의 고급브랜드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융합형 휴대폰 라인업을 발빠르게 세워 놓은 상태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승부를 걸 제품은 동영상폰, 게임폰, 위성DMB폰, WCDMA폰 등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오는 2010년 휴대폰 세계 시장점유율 25%와 매출 250억달러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LG전자도 내년 북미, 유럽시장 등을 겨냥한 MP3와 카메라폰 결합형 휴대폰을 추가로 출시해 중저가 중심의 제품라인업을 고가로 끌어올린다

는 구상이다. 동시에 LG전자는 동남아, 중국 등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캠코더폰, 고화질 카메라폰, TV폰 등 융합형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휴대폰 수출의 바로미터는 디스플레이다. 고객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휴대폰 화면의 품질이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보급형 액정표시장치(STN-LCD)에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D-LCD), 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유기EL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한 데 이어 TFD·TFT-LCD로 다시 넘어가고 있다. 일부 업체는 STN-LCD, 초고화질액정표시장치(UFB-LCD) 등을 채용하고 있다.

휴대폰의 필수기능으로 자리잡은 디지털카메라의 화소수도 관건이다. 오는 2008년까지 100만화소 이상의 카메라폰이 전체의 80%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될 만큼 화소는 중요시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계열 등 업체가 지난해 130만화소 휴대폰에서 경쟁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올해 200만화소, 300만화소 휴대폰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업체들은 이 같은 국내시장에서의 '화소경쟁'에서 기른 경쟁력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해외시장에도 200만화소 이상의 제품을 선보여 해외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일 계획이다. 해외시장에서 대부분 휴대폰 업체들은 100만화소급 제품에서 치열한 시장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 업체들이 화소면에서 한 템포 앞서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내 업체들은 내년에 해외업체들보다 앞서 3세대(G) 단말기를 주력으로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즉 2세대와 2.5세대에서 노키아에게 뺏긴 주도권을 3세대에서 만큼은 반드시 놓치지않겠다는 야무진 각오다. 국내 업체들

은 CDMA분야에서 그간 주력 제품이었던 CDMA2000 1X에서 벗어나 CDMA2000 EV-DO 등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는 전략이다.

유럽형이동통신표준(GSM)의 경우 유럽시장을 주타깃으로 삼아 GPRS, WCDMA등의 물량을 대폭 늘려나가는 수출전략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세계 3G 휴대전화 시장은 올해부터 본격화돼 연평균 57%로 급신장, 올해 1,400만대, 2008년 2억대, 2010년에는 전체 휴대폰 시장 중 3G 제품이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PMP	PDA폰	위성DMB휴대폰
주요 기능	동영상 감상 MP3 감상	간단한 문서기능 통신기능(휴대폰) 동영상 감상(VOD) MP3	방송(동영상) 감상 통신기능(휴대전화 겸용 경우)
장점	동영상과 MP3 특화 AV의 질적 우수성 강조 20~40GB의 저장기능	다기능 교통·지리정보 사용가능	실시간 방송 감상 가능 교통·지리정보 사용가능
단점	통신기능 부재	특화된 분야 없음 외장형 저장장치 (내장 128MB)	사용자 주문방송(VOD) 불가 지상파 DMB와 경쟁
화면크기	3.5인치	2.8인치	2.2인치~ 2.4인치
휴대성	휴대폰보다 크고 무거운편	휴대폰보다 크고 무거운편	EV-DO 단말기 수준
배터리	5시간 연속 재생 가능	200분 연속 통화	2시간 연속재생
가격	60만원대	80만원(보조금 지급시 65만원 선)	70만원대
출시일정	10월	기 출시	11월 이후

interview

임종완 이화산업 DM사업부 전무

PMP, 디지털 컨버전스기기 향한 '징검다리'



▶ 섬유제조 전문업체인 이화산업이 최근 들어 차량용 DVD플레이어, 디지털TV 등 첨단산업 진출에 이어 국내에 아직 몇 안되는 업체가 발표한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PMP) 시장 진출 사실은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화산업이 PMP 시장에 뛰어든 배경은.

- 섬유산업에서 선두자리를 50년간 굳혀온 이화산업은 80년대 후반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들면서 함께 성장세가 둔화되길 시작했다. 90년 들어서는 성장이 정체되면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게 됐다. 섬유제조와 관련된 모든 산업이 사양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전자산업에 이화산업이 발을 내딛게 됐다. 이에 2000년 삼성전자 연구원 및 마케팅 임원 출신들로 DM사업부를 마련한 데 이어 독자기술로 PMP '아이유비(iubi)'를 개발,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

▶ 앞으로 PMP 시장에 대한 전망은.

- 내년 하반기쯤 돼야 성능도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소비계층도 광범위하게 넓어져 가격만족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MP3P에서 PMP로 전화하는 고객이 30% 정도, 2006년경에 40%로 확대돼 2007년 또는 2008년경이면 단순 MP3P에서 PMP시장으로 거의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 휴대용 기기 시장에서 동영상을 기반으로한 컨버전스 제품들을 IT 전 분야(MP3업체, 휴대폰업체, PDA업체 등)에서 내놓으며 각계 전투를 벌일텐데 이에 대한 준비는.

- 이번에 출시하는 PMP는 휴대용 컨버전스 멀티플레이어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징검다리이다. 앞으로 네비게이션, 휴대폰, DMB 등을 접목한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중 올

해 말과 내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제품도 있다. 이간이 쓸 수 있는 한도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에 모든 디지털기기를 담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 출시에 주력할 계획이다.

▶ 앞으로 대기업 주도의 컨버전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중견 또는 중소기업은 컨버전스 제품보다 특성화된 제품 출시에 주력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높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대응책은.

-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아이리버, 크리에이티브 등 이미 PMP를 출시한 대기업 속에서 중소형기업이 이 제품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아이리버가 MP3P로 성공했듯이 이화산업도 앞으로 '아이유비'라는 브랜드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디지털컨버전스 기기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 회사내 빠른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 신속한 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회사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본다.

▶ 해외진출 계획 및 앞으로 계획은.

- 일본에서 이미 100만대 주문을 받은 상태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미국 등에 수출할 계획이다. 이미 많은 의뢰를 받은 상태다.

올 초 PMP 신제품 출시예정이었다가 미뤄지면서 몇몇 나라는 주문을 취소했지만 아직도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화산업은 앞으로 '아이유비'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섬유기업 이미지에서 완전 탈피, 전자산업의 주요 위치에 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직한 마케팅 전략으로 철저하게 제품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